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3일 목요일 음 7월 22일 (14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31℃로 예상된다. 당분간 무더위·열대야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70%
30%	고산	30%
30%	서귀포	20%

해돋이 06:09	달뜨기 22:20
해질 18:57	달지기 12:18
물때 만조 01:39	간조 08:40
14:58	21:29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5/30℃
모레	구름많음	24/30℃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호르무즈서 2척 피격... 한국 해운사 선박 포함

미군 이란 공습 직후 공격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유 선박 1척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장금상선 소유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유 '시드르'호가 공격 받았다. 시드르호는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의 공격을 받았고, 몇 분 뒤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가 오만 해안에서 로켓 3발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격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내 이란의 로켓발사대 2곳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 직후였다. 두 선박은 모두 미국 측이 마련한 항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로를 지나고 있었다.

다만 외신이 '장금상선 소유 선박'이라고 보도한 유조선은 장금상선 관련사가 채용선을 준 선박으로,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발생했다. 전쟁 발발 후 해협 통과 선박도 급감해 전쟁 전 일평균 99척에서 이날 9척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목요일론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공공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거나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업체가 쪼개기 계약이 행해지는가 하면, 취지와 달리 특례와 예외 조항이 편법의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다. 공공 계약의 부작용은 제도 자체의 허점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재량과 사적 관계망이 개입할 때 증폭된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수의계약의 횡수와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일 업체와

공공계약, 공정의 문제

반복 계약할 경우,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례제도의 사각지대도 점검해야 한다. 지역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위장 약자 기업'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 실제 경영 관계 등 연관성을 살펴 실질적인 동일기업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편법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 역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예외가 많아질수록 원칙은 약해지므로 반복적으로 예외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의적인 쪼개기 계약이나 허위 사유, 특례 악용 등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

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의계약만 고친다고 공공 계약이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의계약의 문턱을 높이면 불공정 행위는 입찰이라는 또 다른 문으로 우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찰제도의 심사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의중에 따라 심사위원이 구성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공개적 심사위원 풀(pool)을 만들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심사위원 선정 과정 자체가 행정의 의사와 최대한 분리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심사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탈락한 업체가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과 주요 평가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요식행위가 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참된 공정성은 달성될 수 없고, 건전한 비판과 자정작용은 설 자리를 잃는다.

행정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행정의 공정성은 담당자의 선의나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증명돼야 한다. 객관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 기업은 안심하고 경쟁에 임할 수 있고, 행정은 특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민은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공공 계약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

특별기고



진건군

주제주 중국총영사

얼마 전 나는 한국의 백세 독립운동가인 강태선 지사를 찾아뵙고 역사 경험자의 생생한 항쟁의 역사를 들었다. 또한 주제주총영사관 외교관들과 함께 제주항일기념관을 방문해 한민족 독립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펼쳤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를 체험하며 깊은 감동과 경의를 표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이며, 2026년은 한국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이다. 81년 전 일제 군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제주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중한 양국의 지사들은 함께 적에 맞섰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

과거의 길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자

한민국 임시정부 지사들이 중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부터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등이 이르기까지 양국 군민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항전의 승리와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며 세계 반파시즘 전쟁 동방 전선의 장엄한 서사시를 함께 써 내려갔다.

2026년 1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분포돼 있으며, 중국은 한국 독립투쟁의 핵심 무대였다"고 밝혔다. 또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미래를 함께 여는 길"이라며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투쟁은 앞으로도 양국 연대의 깊은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교훈이 되는 법이다. 81년 전 중국 인민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

화를 사랑하는 인민과 함께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확립했다. 그러나 오늘날 신군국주의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역사의 교훈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고 침략의 죄책을 흐리며, 평화헌법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군비 확충과 무장 강화를 가속화해 전후 국제 질서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유엔의 권위를 견지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주권평등을 견지하고 국제법치를 준수하자는 시대적 메시지를 내세우며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국의 힘을 보탰다. 중한 양국 국민은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하고 군국주의의 부활

을 막아 양국 선열들이 피로써 일궈낸 승리의 결실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다. 피로 맺어진 양국의 깊은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졌으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방문을 통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며 중한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으며 양국 관계가 개선·발전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양국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함께 싸운 항전의 역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어야 한다.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중한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전후 국제 질서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

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광양 한국병원→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소리샘 보청기

고리파이프상사

- ◆ HI-3P상·하수도관(고리)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 제수밸브등 밸브류일체(신진전공)
- ◆ 이탈방지부속 하수도 맨홀등(대광주철)
-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일체 도·소매 (주)YDI

대표 이창빈

고리파이프상사 제주시 변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